

크로스로드 특강 (1)

기독교, 역사, 역사의식

2020년 6월 22일 (월)

최종원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역사란 무엇인가?

- 그리스인의 역사 인식 Historia
 - 그리스 로마 신화와 신통기 - 과거는 그 자체로 '영속적' 토대
 - 그리스 철학자, 역사학자 -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은 과거나 현재의 사건과 똑같은 유형과 특성 지닐 것. 따라서 미래에 대한 예언적 전망이나 가능성에 관심 두지 않음
 -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목적 - “과거의 기억이 시간의 경과로 인해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사라져 가는 것을 막고” “위대한 업적들이 끊임없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기록
 - 기본적으로 역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 주기적으로 순환

- 의미로서의 역사 인식의 등장 Gescheichte
 - 히브리 역사 인식 - 과거란 미래에 대한 약속.
 - 과거에 대한 해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자 준비
 - '미래'가 진정한 역사의 초점
 - 순환되는 도식의 그리스적 운명과, 숙명의 관점을 극복하는 '진보'에의 추구
 -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취

사관이란 무엇인가?

-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식견, 역사 의식
 - 역사적 시간에 대한 자각
 - 사회, 문화의 변화, 발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
 - 사관은 개인의 ‘의식내용’이자 ‘가치관’
 - 근본적으로 사관이란 히브리-기독교 전통 속에서 생성, 발전
 - 때로는 역사신학으로, 때로는 역사철학으로

- 역사 신학과 역사철학
 - 공통점 - 역사적 사건의 인과 관계를 통일시켜 궁극적 의미를 깨우쳐 주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 세계사의 체계적 해석 방식, 즉,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시도
 - 차이점 - 그 의미의 출처가 ‘신적 행위’ (섭리: Providence)로 볼 것인가, 이성의 간계 (cunning of reason)로 볼 것인가?
 - 볼테르 - 최초로 역사 신학과 구별되는 ‘역사 철학’ 용어 사용 - 역사의 제1원리
 - 이 분류에서 최초의 역사 신학자는 ‘어거스틴’, 그 모태는 구약 성서를 바탕으로 한 히브리인의 역사 인식 - 역사의 신 (God of History)
 - 근대 - 역사의 제1원리 - 섭리 대신 인간의 의지와 이성.

역사 철학

- 역사 철학
 -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유 시스템
 - 이 점에서 계시와 신앙을 근거로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였던 히브리인의 역사 이해, 어거스틴의 신학적 역사 이해는 역사 철학이 시초
 - 18세기 계몽주의 역사 철학 역시 과학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지 않음

- 역사 신학과 역사철학의 핵심
 - 목적론적 - 역사 과정의 일반성 및 사건의 전개 과정에 내재하는 의미 (meaning)이나 의의 (significance) 추구 - 세계사는 하나의 전체로서 미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므로, 역사 발전 과정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
 - * 칸트 - '자연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는 보편사
 - 마르크스 '계급 없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의 목표
 - 어거스틴 - 인류 역사는 단순한 연대기에 따른 특정 역사적 상황 분석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을 넘어서는 '합리적 체계와 질서에 대한 직관적 파악'
 - 역사철학자들은 대체로 역사 과정의 '필연성'에 대한 신뢰

섭리에서 진보로

- 목적론적 역사 자체가 진보를 향한 움직임
- 기독교 - '구속'을 향한 여정. 어거스틴의 '신국'과 '지상국'의 대립 투쟁을 거쳐 '신국'을 향한 발전. 천국의 최종 승리가 '계시' 통해 보장
- 계몽주의 - 인간의 완성과 인류 문명의 진보
 - * 비코 -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며, 그 때문에 인간에 의한 이해와 발전 가능
- 마르크스주의 - 자본주의 및 부르주아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공산사회 의 이상
- Providence 에서 Progress로 - J. B. Bury '사람들은 섭리에 독립되고 나서야 진보의 이론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진보의 이념")
- '사관'의 한계, 근대주의의 한계
- E.H. 카 - "역사가는 사실상 특수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특수한 것 중에 무엇이 일반적인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
- 끊임없는 '일반화'를 통해 사실 판별, 입증 시도
- 역사를 하나의 단일체 (mass)로서 인식, 그 속에 유기적인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 거대 담론으로서의 역사 - 무엇을 위한 진보인가? 망각된 개인만 존재

히브리 - 기독교 사관의 핵심

- 헤브라이즘 사관의 핵심

- 두 종류의 역사 인식 - 사실로서의 역사 (Historie), 해석으로서의 역사 (Geschichte)

- 역사 인식 - 계취테의 역사. 모든 역사 인식은 '주관성' 전제

- 히브리적 역사 인식 속에서 모든 역사적 사건은 '신적 의미' 지닌다

판넨베르그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 - 계시의 본질적 요소: 말씀 or 사건

"역사는 기독교신학의 포괄적 지평이다. 모든 신학적 물음과 대답은 오직 역사의 내면적 테두리 안에서만 그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역사란 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또 인간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창조 과업을 수행하시고 세계 앞에서는 아직 감추어둔 미래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셨기 때문이다."

- 구약 성서 - 역사 안에서의 계시

- 폰 라트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기들의 역사가 특유한 신앙사상에 의하여 근거함을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고대로부터 모든 개별적 역사적 사건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개개의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움직인다.

- 전형 -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상하)

신명기 역사관 - 범죄, 탄원, 구원, 축복

“하나님이 어떻게 일상적 세속 역사에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1. 범죄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사사기 2:11-12)

2. 수난과 탄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 6:6)

3. 구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사사기 6:14)

4. 축복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 사십 년 동안 땅이 평온하였더라” (사사기 8:28)

• 헤브라이즘 사관의 본질

- 역사의 하나님 -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에 근거. 신앙고백적 역사 인식
- 이스라엘 역사 기술의 특성 - 국가의 죄악성을 선포한 유일한 민족사
- 민족적 재난의 목적 - 하늘의 심판, 하지만 그것이 ‘약속의 폐기’는 아님
-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것 - “연단”
-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역사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탄원. 회복과 새로운 성취 경험

히브리적 역사 인식의 새 지평, 새 창조

- 민족주의에서 세계주의로 - 특이한 역사적 경험 ‘종교’로 승화
 - 사적 경험, 세대적 경험을 세대 간 경험으로 승화. 패배와 고뇌가 위대한 창조의 계기
 - 과오 속에서의 각성 - 히브리인들의 지나친 민족주의, 세속성
 - “약속”을 현세적 성공, 전쟁에서의 승리, 나라의 번영 - 정치적 메시아
 -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의 각성 - 하나님의 약속은 현세의 영광과 번영 아님
 - 정점 - 그리스도가 고통 받고 지배 받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지만 메시아를 거부

- 섭리 - 세계에 대한 사명
 - 하나님과의 언약의 핵심이 고난 중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세계에 대한 사명’
 - “사명” - 세계에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 인류에 역사 안에 계시된 하나님 전파
 -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8-20)
 - 차별성 - 민족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넘어선 ‘복음’으로 인한 정신적, 영적 각성
 - 정신이 물질을 극복한 승리 - 패배와 재난이 인류사에 새로운 창조의 계기
 - 역사는 약속. 때로 심판의 행위로 인해 중단된 약속. 하지만 섭리는 악에서도 선을 끌어낼 수 있다. 과거의 죄가 미래의 목적을 위해, 새로운 세계를 위해 변화될 수 있다.
 - 히브리적 역사인식이 세계사에 기여하였던 때는 민족이 철저히 망하고 흩어질 때

어거스틴과 기독교 역사관

- 역사의 하나님 (God of history, God in history)
 - 인간의 지상 역사에 대한 신의 개입 모든 역사 사건들, 국가의 흥망성쇠는 신의 섭리(providence)가 구현되는 것.
 - 신의 도성에 나타난 두 도시의 발전의 관점에서 인류 역사를 설명
 - 어거스틴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신념은 역사과정이 목적론적
 - 인간의 행복이 인류역사의 목적인 종말의 왕국에서 완전히 성취될 믿음
 - 두 도성은 시작부터 끝까지 엉켜있으며, 교회 자체도 두 도성의 혼동의 장
 -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없다. 즉 신의 도성과 교회를 동일시할 수 없다
 -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의 로마=신의도성 공식 반박
- 기독교적 역사 인식 체계화
 -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며, 궁극적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주체가 합치되는 과정이 어거스틴의 기독교적 역사관.
 -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해 가는 인간의 필연적 삶이라는 통전적 시각,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 즉, 역사에 영적 목적이 있다는 것, 역사가 섭리자의 구도에 종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

역사 인식의 변천

“개인이나 사회가 경험하는 사건에 대한 인식과 표현”

- 역사 신학 - 섭리
 - 히브리- 기독교적 역사 인식.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속에서 신적 의지 구현 파악하는 것
- 역사 철학 - 이성의 힘
 - 계몽주의적 역사 인식. 역사를 이끄는 힘으로서 절대 정신, 이성. 하지만 역사의 목적성 자체에 대한 믿음
- 과학으로서의 역사 - 인과
 - 역사의 목적에 대한 믿음 사라짐. 역사에서 의미나 섭리 추구하지 않고, 순수 역사의 인과 관계 파악하는 것이 목적.
 - 히브리-기독교 역사 인식 사유의 단절. 다시 그리스적 역사로.
- 문학으로서의 역사 - 개연성
 - 포스트모던 시대의 역사 인식 - 퇴행적 역사의 경험
 - 거대담론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회의 - 역사의 효용은 사라졌는가?

포스트모던 - 과학에서 문학으로

- 문학으로서의 역사학 - 신문화사
 - 신문화사란 역사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방식인 정치적,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문화를 기반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
 - 문화를 기반- 소외 받았던 민중이나 여성 등 소수나 약자들을 역사의 중심에 두고 그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
 - 민중들의 시시콜콜한 문화도 역사를 이끌어온 힘, 사료적 가치를 높이 인정
 - 혁명이나 전쟁, 군주나 영웅 중심이 아니라 사소한 문화나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 역사를 바라보자
 - 기존 역사 연구 방법론의 해체

- 정치사에서 사회사로
 - 19C 랑케의 역사관에 바탕(역사적 사실 중시)
 - 연구 대상- “국가”, 정치지도자, 정치제도
 - 영웅중심, 지배자중심, 민중들을 위한 공간은 존재하지 않음
 - 사회사 - 민중들의 정당한 몫 찾자. 밑으로부터의 역사에 관심
 - 소외계층이 갖는 사회적 성격 규명, 연구대상 - 대중들의 일상생활
 -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아날학파

신문화사를 읽는 방법

- 두껍게 읽기
 - 내재된 여러 가지 의미를 보려고 시도, 전체적인 틀을 파악하고 의미 추적
 - 단순한 사건의 표면적 의미 너머 내재된 의미
 - 사회적 의미, 문화적 요소, 시대적 특징,
- 다르게 읽기
 - 다른 맥락에서 역사 파악하기, 새로운 역사 해석
 - 역사학 - 서구중심적, 남성중심적, 승리자 중심 서술, 체제 미화
 -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는 기득권층이 만들어낸 표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 작은 것을 통해 읽기 - 미시사
 - 약자들의 기록은 극소수. 빈약한 자료를 풍부하게 읽는 방법 - 문학적 상상력
 - 개인적인 역사를 복원시켜, 대다수 민중의 삶과 생각 방식을 찾기
 - 사료의 부족, 질적 왜곡의 문제
 - 정상적 예외 - 에드아르도 그렌디
 - 1) 주변부에 속하는 사람은 지배층에선 비정상,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는 정상
 - 2) 지배층은 피지배층의 사회현실을 왜곡 하려 시도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사관의 가능성

- 중세~근대시대의 주류 담론으로서의 기독교 사관
 - 교회, 국가, 주류의 해석이 역사의 주체
 - 교회나 지배 계층을 통한 역사 구현
 - 거시적 담론 - 회고적 해석 (retrospective interpretation)

- 21세기의 기독교 사관에 대한 담론?
 - 시효 소멸한 퇴행적 인식?
 - 모더니즘을 넘어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 미시적 담론에서 다시 출발하는 기독교 사관
 - 개인의 인생이 역사의 주체로 등장 - 부과되는 역사가 아닌 만들어가는 역사
 - 특수성을 통해 일반성 찾아가기
 - 개인성 강조 - 개인의 신앙고백의 의미
 - 역사의 신에 대한, 섭리에 대한 신앙고백
 - 개인의 특수한 역사를 통해 구현되는 신의지

역사의 주체로서의 기독교

- 신의지 구현의 대리자, 역사의 주체로서의 기독교인

“하나님과 의 언약과 사명”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18~19)

- 역사의 주체로서 개인에 대한 재발견 -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 ‘공평과 정의’를 향한 주체자 - 그것이 신적 섭리와 계시의 구현
 - 개인이 공평과 정의를 구현할 역사적 책무
 - 의식 있는 개개인의 유대를 통한 목적론적 역사의 구현
 - 개인이 하나님의 역사 구현의 주체 (prospective interpretation)
 - 개인의 자각, 실천, 연대